

어둠이 계속될 때 어둠이 짙어질 때 더 밝은 빛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더욱 기다리며 인내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4월 17일 (토) 제 182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삶의 의미 찾지만... “대단한 게 있을까?”

라이프웨이, ‘팬데믹 겪은 미국인, 삶의 의미/목적 추구 지속되나 깊이 없다’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전면 중지됐던 2020년 악몽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탐색됐다.

최근 라이프웨이(Lifeway Research)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미국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궁금해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

면서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0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2,144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했다(Americans' Views of Life's Meaning and Purpose Are Changing).

대답을 했다.

“만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의문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 응답자의 15%는 매일, 11%는 매주, 11%는 매달, 9%는 매년이라 응답했다. 37%는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고, 1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011년부터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더 많이 의문을 품고 있으며(15% vs 8%), 전혀 생각해보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감소했다(37% vs 46%).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늘었다(18% vs 12%).

맥코넬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지 않는다”며 “성경은 천국에 당신을 위한 장소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매년 멈춰 서서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성인 5명 중 4명 이상(85%)은 ‘물리적 세계와 사회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비율은 10년 전과 유사하지만 2011년에는 강력하게 동의한 응답자가 67%인 반면 올해는 43%로 줄었다.

이번 연구에서 18-34세와 35-49세 미국인(87%)은 65세 이상(79%)보다 물리적 세계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은 5명 중 1명(20%)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시 1층 로비에서 사진전이 진행됐다.

남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본지 2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회 원로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1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고 장영춘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계가족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1974년 개척해 2012년 은퇴까지 38년간 담임목회를 하고 이후 원로목사로 뒤에서 교회를 지켰던 장 목사였기에 교인들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어 1년 후 추모예배를 계획한 것이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1년 전을 회고하며 “목사님께서 성금요일에 가시고 4월 17일 천국환송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과 총회,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특송 “남은 자” (작사 김성국

목사) 찬양 중 상영된 영상에서 직접 나레이션을 한 김성국 목사는 장영춘 목사의 영여명 요셉과 연결한 요셉의 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남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겠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장 목사님에게 열방을 향해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중국어찬양대의 서창에 이어 예배선언, 기도 허경화 장로, 성경봉독,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찬양, 말씀 조문휘 목사(KAPC 총회장), 특별찬양 글로리아시머즈, 추모사 이용걸 목사,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이명옥 전도사, 아버님을 회상하며 장 훈 목사, 특송 강혜영 집사, 축도 이종원 목사(뉴욕교회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김용희 목사



인문학으로 읽는 비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미국 성인의 57%는 “나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얼마나 자주 궁금해 하는가?”라는 질문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답했다. 21%는 매일, 21%는 매주, 6%는 매년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23%는 궁금해 한 적이 없다고,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68%는 삶에서 좀 더 깊은 목적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73%는 보다 높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0년 전과 각각의 비율은 유사하다. 그런데 강력한 동의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동의로 바뀌었다.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자는 줄었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늘었다.

“모든 개인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면서, 맥코넬은 “그러나 스스로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나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이들이 줄면서 인생은 좀 더 비판

적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성인의 59%는 자신의 삶을 위해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28%는 동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소속이 없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지 않았다(37%). 기독교 외의 종교를 가진 미국인들도 대부분 동의했다(80%).

크리스천 중에서는 교회 출석을 더 많이 한 이들이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 교회에 출석한 이들의 51%는 자신의 삶에서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답했다. 한 달에 1-3번 출석하는 이들의 69%와 한 달에 4번 이상 출석하는 이들의 76%도 같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s-usa.com / cjb@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유행,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eavens stars moon hisfinger

stars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and the *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 발행인 칼럼 ●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지난 4월 11일 주일에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원로목사님이셨던 장영준 목사님의 1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교단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노회 여러 목사님 그리고 지인들께서 교우들과 함께하셔서 가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아들 장훈 목사님이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글을 읽어 내려갔다. 한 이민교회 목회자의 가정이야기였지만 모든 이민교회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요 이민 교회의 이야기이며 이민자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었다. 장훈 목사님은 아버님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교회와 사랑을 하며 셋째는 가족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모님이 심방을 가시면서 우유병과 지신을 방에 홀로 남겨 두었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다고 한다.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자신과 서로 돌보며 지냈고 부모님은 교회 일로 새벽 일찍 나가셨고 항상 늦게 들어오셨다고 했다. 교회 일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여러 일들이 아버님을 요구하셨고 그 일에 바쁘셨던 아버님은 자신의 졸업식 등에는 오시지 못하셨다고 하였다. 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님. 그러나 아버님은 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셨고 더 큰 영역의 지도자이신 아버지로서 소명을 받으셨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쏟은 눈물과 땀을 보았다. 그의 글은 이렇게 이어졌다.

“아버지의 그 영역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좇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 되면서 이제야 왜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바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작년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깊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남자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지만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회상한 아들 목사님의 이야기는 내게는 잔잔한 감동을 넘어 큰 파도가 되었다. 장영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남기셨다. 이민자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야기는 수 없이 많으리라. 이제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넘어 “나의 무엇을 나의 자녀들은 볼 것인가?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스스로의 질문 앞에 나는 서있다. 그 날 장훈 목사님의 “아버님을 회상하며”라는 순서 바로 다음에 “남은 자”라는 제목의 특송이 있었다. “남은 자”는 작년 연말 여전히 힘들었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필자가 작사한 곡이다. 그 내용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은 될 수 없어도 그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일부는 이렇다. “...돌리보아 아직도 세상은 어둠의 골짜기요/ 상처난 사람들로 가득 하며 변화가 보이지 않네/ 남은 자여 일어나 꺼지지 않는 불로 어둠 밝히자/ 남은 자여 달려가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자...” 그렇다.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은 분명하다. 선진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가지고 지키다가 넘겨주신 꺼지지 않는 불,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있었는가.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발달의 급한 문제들의 불을 끄는데 급급하다. 이런 세상은 더욱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복음을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눈물과 땀과 피와 함께 새로운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포스트팬데믹 시대,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

월스트리트저널, 교육차원 '이력현상' 으로 엄청난 격차 발생 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업이 뒤쳐진 학생들은 기술, 직업, 수입의 격차를 평생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양손에 두 가지 물건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하나는 종이, 다른 하나는 고무줄이다. 두 손을 꼭 쥐었다 놓아보자. 종이는 여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고무줄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고무줄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에 충격이 오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겨진 종이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부른다. 큰 충격의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형적인 사례다. 과연 이번 팬데믹이 경제에 어떤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까?(The Long-Term Economic Costs of Lost Schooling: Students who are falling behind now because of Covid restrictions may never catch up in their skills, job prospects and income).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부른다. 큰 충격의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형적인 사례다. 과연 이번 팬데믹이 경제에 어떤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까?(The Long-Term Economic Costs of Lost Schooling: Students who are falling behind now because of Covid restrictions may never catch up in their skills, job prospects and income).

스탠퍼드대학의 에릭 하누셰크(Eric Hanushek)와 마거릿 레이먼드(Margaret Raymond)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이력현상을 지적한다. 팬데믹 동안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감소했다. 두 학자는 수업 감소가 학생의 장기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지속적 손실을 입히리라 전망했다.

다. 연구가 이뤄진 18개 주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일리노이주의 피해가

하누셰크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1966



체에 강한 자기력을 가하면 물체의 극성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 원리는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메모리를 만들 때 사용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력현상은 일반적으로 충격 후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뜻하지만, 핵심 기술의 발전, 재택근무 확산 등 긍정적 변화도 포함된다.

지난 수년간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에서 이력현상의 증거를 찾았다. 경제학자인 올리버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와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교수는 1970년

레이먼드 연구원이 18개 주와 워싱턴DC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팬데믹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한 지난해 1년간 독서 116시간, 수학 215시간의

수업감소 따른 기술충격으로 25-30조달러 생산성 손실 유발 학생 개개인 평생 가계소득은 평균 6-9% 낮아질 것 팬데믹 후 학생들 수업과 학업 정상화 고민해야

학습시간이 감소했다. 학생들은 수업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뒤쳐진 학업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수학 과목에서 분수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단계인 대수학 수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경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혁신, 노동자의 기술, 생산 기계의 기능 등이다. 혁신과 기술은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 하누셰크 연구원은 2020년의 수업시간감소에 따른 기술충격이 이번 세기에 걸쳐 25-30조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평생 가계소득은 평균적으로 6-9% 낮아질 것이다.

년과 1967년, 독일 정부는 학기제 일정을 조정하면서 2년간 일시적으로 학사일정을 단축했다. 수업시간감소의 영향으로 해당 시기 학교에 다니 학생의 평생 소득이 5% 감소했다. “조만간 등교수업이 재개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수업축소는 학생들에게 오랜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물리학에서 “이력”이라는 용어를 가져왔다. “이력”은 금속 물

대-1980년대 유럽에서 경기침체 기간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이후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실업률이 침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고무줄 같아야 할 실업률이 종이처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1986년 발표한 “실업의 이력현상” 논문에서 이런 현상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추측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싸우기만 할 뿐, 노동자들이 해고된 뒤에는 도와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다.

팬데믹이 학습에 미친 충격은 공평하지도 않았다. 흑인, 히스패닉 인구가 비율이 높은 교외 지역 학생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장 내시경, 위장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도내시경 시술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종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3면으로 계속)



목회서신

백신 맞으셨나요?



강인국 목사 (미시안아한인교회)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의 하나가 “백신 맞으셨나요?” 라는 말이다. 그 인사와 함께, 무슨 종류의 백신인지, 몇 번째 주사를 맞았는지, 맞고 나서 후유증은 어떠한지 등 코로나 백신에 관한 소재로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게 된다.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니 조금씩 마음에 안정을 찾는 것 같고, 팬데믹의 길고 어두운 동굴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다. 하지만, 변종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에 여전히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다. 백신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원균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 균을 인위적으로 인체에 집어넣으면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그 약화된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면역체계가 강해진 몸의 면역체계가 강력한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더라도 이기게 만들어 준다. 영국의 의사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이후부터 인류는 홍역, 소아마비, 뇌膜炎, 백일해,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백신의 힘은 실로 경이롭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한번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가? 우리 집에도 내 위의 형과 누나가 어린 나이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백신은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을 무력화 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다. 실로 백신은 생명의 약품이다. 우리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큰 마

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런 백신을 개발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안타깝게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후에 약간의 고통을 겪는다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고통은 치명적인 죽음과 비교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내 몸이 약간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온갖 종류의 백신을 다 맞을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나 무서운 질병이나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이 치명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치명적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는 백신은 없을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한탄한다(롬5:12).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그 치명적인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롬5:17-19).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치명적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롬8:1).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구상에 쏟으시면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백신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주입하고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잠으로 대답하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토록 담대하다. 우리의 몸에는 어릴 때 맞은 예방주사로 인하여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생명의 표시이다. 그 예방주사 덕분에 우리는 무서운 질병들을 이겨내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깊고 흉한 흉터가 있다. 그 예수님의 흉터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표시이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신을 맞지만 결국 거대한 산과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참혹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dik0184@yahoo.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유방암

현대 의학의 오랜 숙제는 암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암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치료에 어렵고, 발달한 현대 의학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완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암의 조기 발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암에 대한 조기 발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중독자로 부를 만큼 일에 파묻혀 사는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정기 건강검진을 빼뜨리지 않고 해왔다. 석 달 전에 유방암 정기검사mammogram을 했기 때문에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져도 처음에는 일하던 중 어딘가에 부딪쳐 다쳤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크기가 커져서 의사를 찾아왔다. 크기는 지름 약 2센티미터 정도고 통증은 전혀 없었다. 주위 조직에서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다. J씨는 정밀 진단을 거쳐서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은 미국에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새로 진단을 받고, 4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흔한 질환이다. 여성에서 폐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다. 다행히 지난 20년간 유방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은 약20% 정도 줄었

는데 이는 초기에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방암을 검진하는 진단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한 유방전용 방사선을 촬영하는 유방촬영술(mammography), 의사에 의한 유방암 촉진(clinical breast exam),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덩어리를 발견하는 유방촉진자 가진단(self-exam) 등이다. 세 가지 검진으로 약 50%의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약 5-10%는 방사선검사로 발견되지 않고 유방촉진에 의해 서만 진단된다. 유방 엑스선 검사는 유방암 조기발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춰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유방 엑스선 검사에서 비정상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 둘째, 유방 방사선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더라도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방 엑스선검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환자가 젊은 경우 암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

문에 작은 덩어리가 한두 달 안에 크게 자랄 수 있다. 셋째, 유방암 방사선검사는 50-70세 연령대에서는 유방암 조기 발견 효과가 인정되고 있지만 50세 이하나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방의 지방조직이 줄게 되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40대 이전에는 엑스선 촬영 시 노출되는 소량의 방사선을 우려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다. 자가진단도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도움이 된다. 초음파상에서 물혹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인지 구별해야 한다. 방사선 유방촬영검사에서는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촉진할 때 종양이 만져지지 않을 때는 종양의 위치를 판단한 후에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steretotactic biopsy).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방암 조기 검사는 촉진과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를 함께 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가검진은 매달 월경이 끝난 직후에 하고, 방사선 유방촬영 검사

후에 도움이 된다. 초음파상에서 물혹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인지 구별해야 한다. 방사선 유방촬영검사에서는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촉진할 때 종양이 만져지지 않을 때는 종양의 위치를 판단한 후에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steretotactic biopsy).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방암 조기 검사는 촉진과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를 함께 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가검진은 매달 월경이 끝난 직후에 하고, 방사선 유방촬영 검사

는 40대 초반부터 1-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것이 좋다.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BRCA-1, BRCA-2)를 가진 여성은 일반여성보다 더 일찍부터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를 받도록 하고(18세부터) 심지어는 예방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 중 여러 명이 폐경 전에 유방암에 걸렸다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50% 이상으로 봐야 하고, BRCA와 같은 유방암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여성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에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방암 자가진단 촉진법 ①거울 앞에서 서서 유방을 보며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 유두와 피부의 상태 등을 관찰한다. ②양손을 위로 올려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피부가 함몰된 곳이 없는지 살핀다. ③왼손을 어깨 위로 올린 후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유방의 바깥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촉진한다. 유방을 약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촉진한다. ④유두를 꼭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검사한다. ⑤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지 만져본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문의:213-383-9388

엑스선, 촉진, 자가진단으로 조기발견 가능



케서린 조 'No Perfect World' 싱글앨범 출시

2021년 고난주간에 발표된 케서린 조(Catheryn Jo)의 싱글앨범 No Perfect World(완전하지 않은 세상)가 출시됐다. 케서린 조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 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Here's to the ones whose breath is running out, Here's to the ones who rush in to help... 숨을 쉬기 힘든 그대에게, 도움이 절실한 그대에게 이 노래가 있다”고 말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은 캐나다 The Bridge CRC 교회를 담임하는 Bruce Gritter 목사가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반복되는 이 가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리키고 있다. 이 곡은 Epic Pianist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활동하는 영화음악가이자 프로듀서, Joseph Kim이 작곡과 함께 편곡 및 프로듀싱 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편곡의 강점을 가진 만큼, 그의 편곡은 Bruce 목사의 신학적이면서도 시적인 가사와 Catheryn Jo의 진정성 있는 표현력과 맑은 음색과 더불어, 이 노래의 감동과 깊이를 더하게 했다. Epic Pianist Joseph Kim은 Orchestre national d'Île-de-France에서 연주 계획을 가질 만큼 인정받은 실력가다. 이 노래는 YouTube를 비롯한 Spotify, Amazon music, Deezer, iTunes 등 스트리밍 앱에서 들을 수 있고, 특별히 YouTube 에서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으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75sD7RI50w (정리: 박준호 기자)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시16:3)

시편 16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써 관심받고 좋아하고 누릴 것이 많았지만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성도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나누고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

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의 신분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존귀히 여기며 옆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 주님만을 섬기리라(시16:4)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도다." 이단이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신없이 그곳에 빨려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데 남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우리 입술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웃에 흠이 묻으면 더러워지듯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정성을 쏟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16:5-6)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5절 "소독이 되시고"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실 분임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감격스럽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실로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등듯한 것 많아보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목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시16:7)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송축할찌라"의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고해주시고 조언 주셔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혼계"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혼계를 "성령의 내적조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은 고요하고 적막하고 상징적으로 어두운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울 때 죄를 짓지만 성도는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힘든 그 때 성도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시16:8)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삽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기분 좋을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만 아니라 고난 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평강을 누릴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는 나의 오른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시16:9)

본절은 시편 16편 결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받아 누릴 복입니다. 먼저 영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는 성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분 사랑하고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심령에 혼계하시는 것

을 잘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하시고 이 속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터져 나와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육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마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3)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 예배와 회중들

앞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회중들은 모두가 각자의 맡은바 역할들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 (Participation) 해서 최선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였다. 하지만 중세 교회의 회중들은 입을 벌려 찬송을 할 수 없었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제도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그 이유는 잘 훈련받지 못한 이들에 의해 불려지는 찬송과 또 경건하지 못한 이들이 읽는 말씀의 고백은 거룩함이 회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통해 다시 회중들의 입을 열어 찬양과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중들이 또 다시 중세교회와는 다른 분야의 구경꾼으로 전락되어져가고 있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오늘날 회중들은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입을 다물어가고 있다. 그냥 구경꾼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연주능력과 예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간다. 이 현상은

이 회중들과 함께하는 찬양에는 함께 찬양하기보다 그것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오늘 신어의 소리가 별로네, 아 참 멋진 매력적인 소리네, 혹은 앙상블이 엉망이네 etc..."

회중들로 하여금 이런 평가들이 주 임무가 되게 하는 오늘날 예배의 풍토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다분히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이다. 이 같은 일은 회중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교육시키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더 안타깝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올바른 교육을 뒤로 하거나, 또 지도자 자신이 올바르게 못한 예배관을 갖고 현장에서 잘못된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말씀과 찬양에 크게 반응해 하나님만 존귀케 적극 참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일이다. 무대 앞에 펼쳐지는 스크린이 더 이상 찬송가나 다른 악보들을 소지하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현란하게 펼쳐지는 음악적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 소리에 압도되어 그냥 구경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 이것 또한 오늘날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지만 그 편리함이 독이 되어가는 현상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것뿐인가? 목회자의 설교를 자신의 신앙적 척도에 맞추어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다. 특히 요즘 편리해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더욱더 크게 활성화 되어가는 온라인 예배 교회들을 찾아 얼마 찾아 삼만리 인터넷 쇼핑을 일삼고 있다.

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되는 시내산 예배처럼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룹과, 청중들의 역할에 대한 임무와 드림의 원리가 바로 정돈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예배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회중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내산 예배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있음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중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을 다해 연주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대 위의 연주자들(설교자, 찬양자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 참 짱이야, 좋은 윤리적 교훈들이네, etc.,, 예배음악 찬양인도자들과 연주자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 (Spiritual Leadership)'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시대 온전한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려는 훌륭한 연주자들로 세우기 위해 예배 지도자는 그 일을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회중들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말이다.

한편,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본교 예배음악 철학 특강 시간에 "복음적 예배"라는 강연을 통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훌륭하게 연주(Performer)할 수 있게 무대에서 열심히 조력(Helper)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함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참 잘한다" 회중들을 칭찬하게 하도록 양보해 드러야 한다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로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뒷자레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장릉우도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5)



2. 사랑 가운데서 드러나는 장애의 의미

장애인은 불쌍하지만 쓸모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쓸모없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짐이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고대 파르타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살려주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죽였다. 독일의 히틀러도 조직적으로 장애인들을 제거했다.

소위 장애인들은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조차 장애인 선교를 소홀히 한다. 그들은 건강한 어린이들처럼 사장이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고 전문인이 될 수도 없다. 물론 소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자립하지도 못하고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도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내고 세탁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만 생산적인가? 그것은 너무 물질적인 해석이다.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생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생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식의 증가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풍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힘의 생산’ 뿐 아니라 ‘사랑의 생산’이 필요하다. 장애는 힘과

경쟁의 세계에서는 집이요, 쓸모없는 것일 수 있지만 사랑의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비로소 장애의 의미가 드러난다. 회사 사장은 건강하고 유능한 사원을 뽑겠지만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 사장과 관계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힘의 나라 관계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는 사랑의 나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거의 없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에 짐만 되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사랑 없고 경쟁만 있는 사회에서는 분명 장애인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사회에서는 장애인도 없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경쟁과 싸움만 있을 것이다. 장애인만 사랑 없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만 능력이 증거되고 능력이 증거 돼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아

개인주의, 물질주의, 관능주의가 주도하는 사회규범에 자신을 빼앗기는 우리 모두를 철저히 비판했다. 아담은 철저히 의존된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만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나는 집이 될 뿐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닌 긍휼만이 인간의 미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믿도록 분명하게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은

장애인 아담이 드러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경쟁과 효율성에 지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

진 채로 있을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의 부모는 그저 그를 사랑했다. 그가 아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은 그를 있는 모습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또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자로, 곧 철저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자로 환영했다.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그때부터 아담은 특별하고, 경이롭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약육의 자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애인

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장애인 아담을 통해 드러내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아담은 장애를 통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자기 보호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무력한 상태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로 살았다. 이것은 자기 방어와 자기 성취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무언의 의미를 주고 있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아담의 수난이 의미심장한 예언적 증거였다. 그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의 수난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삶의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하도록 해주었다.

장애인 아담이 드러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경쟁과 효율성에 지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 장애인 아담은 철저하게 무력하게 살면서 사랑 안에서 서만 인간은 살 수 있고 사랑 없이는 모두가 집이고 경쟁의 대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miju92@gmail.com

선교 펴기

멕시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푸르른 들판에 크고 작은 노란 꽃들과 분홍색 꽃들이 어울려 무척 아름답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중미 사람들 지금 여기 티화나

(Tijuana)를 비롯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Haiti 등지의 수많은 중미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들이 임시로 머무는 이곳은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주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부 돈을 받습니다. 저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올라왔든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심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얻은 성구 암송 책자와 함께 작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몇 교회건축 진행

이 어려운 시기에 몇 교회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축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MQV 교회는 작년에 아이들 교실 2개를 건축하였고, 지금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찬양(Alabanza)교회는 매우 허술한 교회에 흙바닥이어서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벽들도 고치고 있습니다. 실로암(Siloe)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크게 건축한다고 여기저기를 이어붙이다 보니 일이 크고 복잡합니다. 한 조그만 오순절(Pentecoste)교회도 교회 옆을 조금 넓히려 하는데 그 부분도 도울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힘닿는 대로 다른 교회들의 건축도 도우려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중미인들에게 복음이 잘 심어지기를
-교회 건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Covid-19이 속히 물러가서 영화 상영과 교도소 사역이 재개되도록
-우리 아이들 에스더와 바울을 위해

최재민 선교사
4mexico@daum.net

...교회음악

(14면에서 계속)

뛰어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의 지휘자는 단원들이 분명한 역할을 하게 지도함으로써 훌륭한 소리를 뽑아내어 아름답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지난 2008년 1월 필자는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마리

스 얀손스(Mariss Jansons, 1943-2019)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그룹의 하나인 왕립 콘서트헤비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2번(Symphony No.2 in D major, Op.73 by J. Brahms, 1833-1897)을 연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다.

100여명에 가까운 단원들이 각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연주자들 거의 모두가 의자에 몸을 맞기보다는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버쩍버쩍 들어가며 흥분에 겨워 연주하는 모습은 시종일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머리를 빼죽빼죽 세우게 하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감동의 연속이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 지휘자와 연주

자들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예배 지도자와 회중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임무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모든 예배자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설교자들은 주연배우의 마음이 되어 갖은 미사어구를 써가며 회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전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존

귀케 하기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음악인들 또한 철저히 기능, 수단이 되어야 할 음악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에만 심취되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망상에서 모두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 한편 회중들은 입을 굳게 다

물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에 크게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해서 전심으로 드리는(Giving)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이다.

iyoon@wmu.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낮선 땅에 뿌리내린 희망!

TGC, 이민 2세 유진박 목사가 들려주는 영화 '미나리' 가치와 관람포인트 소개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로 2020년 선댄스영화제 드라마틱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그리고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정이삭), 각본상(정이삭),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음악상(에일 모세리) 후보에도 올랐다.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 세 배우뿐 아니라 아역 배우까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선보이며, 리 아이작 정 감독은 화제의 인물이 됐다. 병아리 감별사로 10년을 일하다 자기 농장을 만들기 위해 아칸소의 시골마을로 이사온 아버지, 아칸소의

황량한 삶에 지쳐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픈 어머니, 딸과 함께 살려고 미국에 온 외할머니. 영화는 어린 아들 데이빗의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포착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의 정직한 기록이다.

이민 2세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진 박 목사는 이 영화는 "구속의 활로 감싸는" 교훈이 감춰져 있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신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묘사하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Minari' Searching for Eden in Arkansas).

이삭 정(Lee Isaac Chung) 감독의 영화 '미나리'의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들렸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이민 2세로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공감하는 카타르시틱인 눈물을 예상하며 전화기가 폭발할 정도로 내게 전화를 했다. '미나리'를 실제로 본 후로 내 어린 시절의 향수나 트라우마로 인한 눈물은 말라버렸다. 하지만 내 영혼은 충만해졌다.

정 감독은 자신이 양육 받으면서 느꼈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와 인간이 된다는 것, 남자가 된다는 것, 실패할 때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크리스천인 정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써 보내왔다.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희망하며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때로 한국계 미국인들은 인종차별로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소망은 이러한 분명한 분열을 뛰어 넘어 이 영화의 배경과 사람들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리'는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본향을 찾는" 이들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3-14절의 진리가 생각나게 한다.

에덴동산을 향한 꿈

엄선된 극장에서 현재 방영

되고 있는 이 영화는 '크고 위대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안락함에서, 아름답지만 외로운 아칸소의 오자크로 가족을 이끄는 제이콥 이스티븐 연 분)의 뒤를 따른다. 그는 "미국 최고의 흙"을 사용하여 자기 농장의 농작물이 풍부하고 수익성이 있기를 희망한다.

정 감독은 관객들이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공감해주시기를 바랐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러한 바람을 말해줬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을 쓰는 데 가장 크게 참고한 자료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원과 농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정원 속의 배신과 구속의 중요한 순간을 배치하는 듯합니다. '미나리'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은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고 성공적인 농부가 되는 것이 상이 된다. 건강한 남자와 남편, 아버지와 친구로 자신을 일구는 것도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정원의 샘플 찾기

에 물을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외부의 도움에는 회의적이다. 충분한 노력과 기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탱해줄 우리의 우물을 찾는다.

크리스천으로서 정 감독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묵



생수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길에 더듬는 이들의 삶과 스토리 포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종 언어 국가 상관없이 가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정원을 떠나 다른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영화의 중심 갈등은 번성하는 정원에 대한 제이콥의 꿈이 그의 아내 모니카(한예리 분)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그녀는 가족 자체가 잘되기를, 특히 심장이 약한 어린 아들(엘런 S. 김 분)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제이콥의 정원 작업의 목표는 단지 건강한 작물을 생산하

영화 속 이야기 전개의 대부분은 제이콥이 농장 작업의 필수 요소인 수원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 영양이 풍부한 우물" (요4:6) -을 찾는 그의 탐색은 좌절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정원은 번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종종 우리는 성취, 부, 권력, 인정 등으로 우리 영혼의 정원을 채우려 한다. 영화 속 제이콥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정원

르지 않는 생수(요4:14)를 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영화 속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니긴 하지만, 정 감독은 잘못된 곳에서 물을 찾는 것에 대해 성경적 강의로 청중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구속의 활로 감싸는" 교훈이 감춰져 있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미나리'는 신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묘사하고 있다.

정 감독은 내게 이렇게 말했

다. "저는 스스로 다양한 믿음의 표현과 불신을 경험해 보았으며,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믿음에 접근했던 그 방식으로 저도 이 영화를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다른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작가 자신의 내면생활의 한 면을 표현하거나 씨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자기 작품 속 인물들에게 자유로운 고백을 주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은혜와 구속을 찾도록 합니다."

미나리의 회복력

한인 이민자 가족의 아들로 서 나는 '미나리'에서 부모님의 낯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분개심이나 오늘날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받는 정체성에 대한 좌절감 대신 내 가족의 회복력에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는 부모님의 투쟁 속에서 싸움소리가 집안을 울리고 나뭇잎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가족이 전부였기에 서로를 의지했다.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들은 젖은 토양에서 쉽게 자라는 한 방허브인 미나리와 같은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순자 할머니(윤여정 분)는 농장의 개울 근처에 미나리를 심으며 '잡초처럼 어디서나 잘 자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번성하는 농장에 대한 제이콥의 모든 꿈에 맞게 생산되는 수확 작물은 결국 미나리뿐이다.

나는 미국 교회가 특히 지금 '미나리'에서 묘사된 회복력과 교회의 지체들인 수많은 이민자 크리스천들을 주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신앙을 양육해가기가 이미 어려워진 세속화된 시대에 인종이라는 낯을 세워 분리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리스도의 지체 전체에서 힘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우리 자신의 정원에서 흠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른 '정원사들'과 더 많이 협력하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면 어떨까?

모든 인간은 '미나리'가 훌륭하게 보여주듯이 에덴동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정원사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착하거나 혹은 이주한 지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히11:16)이다. 거기서 우리는 에덴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주 농부며 그곳을 항상 쉽 없이 찾고 있다. 그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생수가 공급되는 토양에 뿌리를 두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자.

'미나리' 속의 이(Yi) 가족이 보여주듯이 계절과 농작물은 피고 지지만 가족은 항상 지속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이나 언어나 국가에 상관없이 영원히 가족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빛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